

다문화 선교에서 목회자교육: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영혁(총신신학대학원 실천신학/교회교육)

다문화 선교에서 목회자교육: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문화선교는 당장은 한국에 들어온 타문화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 범위가 더 확장 될 것이다.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선교 파송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때 대하는 사람들은 또 여러 문화 배경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화적 이해도 다문화선교에는 병행되어야 한다. 이 모든 활동과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감당해내는 것이 다문화선교이다. 이 다문화선교에서 목회자교육은 모든 다문화선교를 위한 여러 부류 교육의 핵심과 전체를 보여줄 것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다문화선교에서 목회자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커리큘럼의 기초를 제안하려 한다. 커리큘럼은 실제적 교육의 총체이기 때문이다. 그 커리큘럼은 내용적으로는 다문화선교를 전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방법적으로는 교육학적 커리큘럼 이론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내용에 있어서는 다문화선교의 역사와 실제 및 전망을 담음과 함께 특별히 이 때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주목함으로써 다문화선교의 역동적 방향을 찾으려 하였다. 방법적으로는 현대적으로 제시된 커리큘럼 이론을 따라 다문화선교를 위한 목회자교육 커리큘럼을 제안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중심으로 한 개론; 2. 현황을 열거하는 각론과 내용의 조직; 3. 구체적 전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투어(tour); 4. 과정에 대한 심화된 이해와 과정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을 얻기 위한 재인식; 5. 자서전 쓰기; 6. 결의 다지기와 평가

핵심어: 다문화선교, 세계관, 커리큘럼, 목회자교육, 네트워크, 허브,

I. 서론

이 논문은 ‘다문화선교협의회’¹⁾의 요청을 받고 다문화선교 상황에서 목회자 교육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그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제시하려는 시도였다. 필자는 선교에 대하여는 비전문가로서 이 문제를 가지고 씌름하였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다문화선교의 개념과 역사, 다문화선교에서 목회자의 위치에 대하여 먼저 규정하여야 했다. 그리고 그 규정을 따라 커리큘럼 모델을 제안하였다. 아주 실제적인 현황을 따른 규정과 제안임을 초두에 밝혀 둔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살게 하셨고(창10장), 예수께서는 땅 끝까지 말씀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을 주셨으며(마28:19-20), 신약시대 교회는 지엽적으로는 방언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이는 성령의 역사였다(행2장).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경에는 너무나 뚜렷하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믿음이 특별한 변화를 겪을 때 재삼재사 분명하게 확인하였던 분명한 현실이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그리 쉽게 관철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시선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의 믿음도 감당하기가 어렵고, 교회를 세우기가 어려우며, 한 민족 교회 안에서도 개혁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선교라는 말 앞에 서면 거기까지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공자가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말했을 때는 분명 한 사람이 군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세상 모든 일을 하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기독교인도 분명 그래야 하지만, 선교와 다문화적 믿음에서는 분명히 그와는 다른 것이 있다. 비록 내게 아직 남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뚝 떨어치고 나서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부족함을 가진 채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리하여 원래부터 이 다문화선교야말로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 있는 일이며, 우리의 부족함을 몰려 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하늘의 일이다.

그러나 신학적 전개와 선교 및 목회 일반에서 다문화선교는 개념으로 제대로 구별되지 못하고 조금 발전된 혹은 시대성을 뒤따르는 선교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른바 통전적 선교는 복음이 영원과 관련된 종교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필요와 삶에 관련되도록 하는 선교로 규정되고 있으나(한국일, 2010: 441), 이런 개념이 다문화선교를 대신할 수는 없다.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은 복음의 본질을 다시 되짚게 하는 본질적 선교론으로 특별하지만(황영익, 2015, 124-135), 이 또한 다문화선교와는 다르다. 폴 피어슨은 자신의 책에서 선교의 새로운 패턴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또한 기존의 선교 개념으로 오늘의 선교를 설명하려는 입장이며, 다문화선교 같은 개념을 제안하지는 않는다(Pierson, 2009: 677-692). 다문화선교는 선교과송국과 선교현지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 이주민 사이의 왕래 교류 소통과 변화를 모두 그 내용으로 삼기 때문에, 그간의 과송 위주의 선교와는 현저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다문화선교는 결국 ‘다대다(多對多)’의 선교적 만남으로 나가게 하는데, 이를 위한 선교적 개념과 정황들은 또렷이 구별되어 설명되지 않은 채로 있다. 이 논문은 특히 다문화선교에서 목회자 교육 커리큘럼에 주목함으로써 다문화선교의 복합적 국면을 보이고자 하였다. 보다 전면적 규정과 활동 방안은 선교학자들의 몫이라 본다.

교육학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기독교교육학은 신학에서 세상을 향하여 난 창과 같다. 그렇다면 한편 선교 혹은 선교학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선교는 교회에서 세계를 향하여 난 창과 같다. 말하자면 선교는 교회와 세계를 매개하는 임무를 가졌고, 그 임무는 그 일을 해낼 지적 능력과 감정적 관용과 의지적 열정을 요구한다.²⁾ 조금 다른 국면을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선교학의 발전은 교회가 믿음 가운데서 세상을 향하여 열 수 있는 지적 능력과 감정적 관용과 의지적 열정의 크기에

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52, 생수가 흐르는 숲 교회 소재. 사무총장 오영섭 목사. 유학생, 다문화 이주민 및 이주민 본국 선교를 다각적 포괄적으로 모색하는 신생 선교회이다.

2) 어떤 경우에도 지정의는 인간 이해의 중요한 해석학적 틀이 된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을 보라. (안영혁, 2014, 156-158.)

대략 비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다문화선교는 현재 이 발전의 방향에서 첨단에 서 있다. 따라서 이 다문화 선교를 지향하는 선교공동체는 그 안에 지적 능력과 감정적 관용을 키워야 한다. 의지도 매일 새로이 해야 한다. 이것은 개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선교공동체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도우면서 함께 해내야 할 일이기도 하다. 다문화선교를 지향하는 선교회는 바로 그런 첨단 선교공동체의 사역을 자임한 것이다.³⁾ 남보다 먼저 중요한 일의 선봉에 가서 선 것은 자랑이기도 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은 더 무겁다. 자랑 못지않은 책임에의 결의가 이 운동의 성장을 좌우할 것이다. 다른 단체에 비해 우리 선교회가 다문화선교를 더 잘 이야기할 수 있다는 우월감이나 경쟁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문화선교의 임무를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의미 있게 전개할 수 있을지가 이런 선교공동체의 과제라고 하겠다. 교육학자로서 그 과제를 위하여 다문화선교의 교육적 커리큘럼을 가지는 것은 필수적이다. 커리큘럼은 실제적 교육의 전체적 표현이기 때문이다(정일웅, 2011: 301).

II. 다문화 선교의 기본 개념

교회 충성하기도 어려운데 선교라니, 선교도 감이 없는데 다시 다문화라니, 대체 어떡하라는 말인가? 우선은 선교의 영을 받은 사람이 나서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선교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쬐여서 다른 사람도 나선다. 뭔지도 모르고, 혹은 뜻이 좋아서 어찌 될지도 모르고 들어섰다가 생각지 않게 그 길을 계속 가게도 될 것이다. 모든 선교가 그렇지만 다문화선교는 더욱 그렇다. 그 단순치 않음은 논리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의지에 의지를 더하지 않으면 진전시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다문화선교의 훈련장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끄는 선교사들의 의지에 가위눌리는 느낌이었다⁴⁾. 명확한 지식보다도 지혜로운 해석보다도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다문화선교를 이끌어 가는 경우는 많은 것 같다. 실로 하나님의 경륜은 피할 수 없으며, 이 경륜을 위하여 이 활동을 위한 커리큘럼을 고민하는 것은 또한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선교의 의지에 지혜를 더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1. 문화의 시대적 의미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서 '문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인가? 신학적 기본은 믿음에 관련된 모든 일이 세상일에 대한 우월적 시선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그것에 컨트롤타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즉 우위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냥 이 세상의 인간사 분류 방식을 따르자면 신앙은 문화에 해당한다.⁵⁾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제국주의는 자주 선교사를 뒤따라 들어가 군사적 정치적 행보를 하곤 하였지만, 그래도 선교사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렇다면 그 선교사의 영역은 말하자면 문화였다(김성태, 2000: 21-27). 마르크스가 자신은 헤겔의 신비적 변증법을 뒤집어 놓으려 한다고 말한 것은(Marx, 2008: 61) 의미심장하다. 헤겔의 세계이해는 피라미드구조를 가진 세계에서 그 정점에 있는 법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즉 세계의 전 영역을 지배한다는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그것을 뒤집어서 그 시대의 지배 세력이 다수 대중을 지배하려 하겠지만, 프로레타리아트가 세계를 지배하는 구조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Marx: 46-47). 정치적 우위만을 뒤집어 놓은 견해이다.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 같은 예에서 사회주의의 실패도 보지만 절반의 성공 같은 것도 본다. 중국에는 여전히 권부가 있지만, 중국식 사회주의는 중국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 대중을 염두에 둔 정치를

3) 예를 들어 필자는 필자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다문화선교협의회'라는 단체를 염두에 두고 이 논문을 쓴다.

4) 다문화선교협의회는 2016년 2월 6일 아직은 작은 선교회이지만 정선군과 협력하여 각국에서 오는 선수들과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HUG Festival을 개최한 바 있다. 이 때에 평창에서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시범경기가 열렸고, 17개국 26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국민일보 2월 4일, '정선허그페스티벌' 6일개막, www.kmib.co.kr).

5) 신문들은 종교를 문화 혹은 사회의 한 부분에 위치시킨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상대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인류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왔을 때에는 포스트마르크시즘이라는 시대적 지향을 함께 보게 되었다. 즉 헤겔의 방식을 여전히 따르는 자본주의권이냐 마르크스의 방식을 따르는 사회주의권이 함께 정치 중심적 세계 이해를 내려놓아야 했다는 것이다. 세계에 대한 문화적 이해는 한 때는 사회주의적 정치 이론의 문화적 관철로 생각되기도 했지만, 분명 사회주의가 우리 시대 문화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것은 아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지역과 이념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 파고들었다. 우리나라도 1992년 서태지 등장 등의 사건과 함께 확고히 포스트모던 사회에 들어섰다. 비록 여전히 선거철은 뜨겁지만, 적어도 세계이해는 문화적으로 해야만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또한 그것은 분명히 사회 발전의 양상이다.

기독교인에게 문화는 단지 문화라는 말로 끝날 수는 없다. 다문화선교는 시대적 대세인 ‘문화’와 의당 연관된다. 이미 대세가 된 문화는 선교를 필연적으로 다문화선교에로 끌고 가게 되어 있다. 선교에서는 원래 문화가 중요하였다. 파송교회가 현지를 이해하기 위해 현지의 문화 이해는 필수적이었다(방동섭, 2010: 412-413). 그런데 더욱 문화가 중요한 현재에 와서는 그 양상이 더욱 복잡적이 되었다. 단지 현지의 이해가 아니라, 양자의 교류 상황이 보다 일상적이 되었다. 보쉬는 이것을 공생이라고 일컫는다(Bosch, 2000: 530-531).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둘 혹은 셋 이상의 문화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부딪히고 교류하게 된다. 그래서 다대다의 문화적 교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의 문화적인 선교는 비교적 단순한 이해와 접촉을 염두에 둔 문화 선교라는 말로 적절치 않다. 그리하여 문화들의 복잡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다문화선교라는 개념이 요청된다. 한편 현재 한국교회로서는 한국 내에서 다문화 배경의 외국인들에게 선교하는 것이 실제적 문제이다(임희모, 2015: 269-280). 따라서 다문화선교는 다대다의 복잡적 문화 상황에서의 선교를 전체의 폭으로 삼고, 당장은 주로 한국 내에서의 다문화적 외국인들을 향하여 활동하는 선교이다.

구글의 검색엔진으로 대변되는 인터넷 웹과 스마트폰은 가속적으로 문화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즉 정치 경제가 아니더라도 세계에 편만한 대중의 문화를 전달할 도구가 명백히 존재하게 된 것이다.(정하웅, 김동섭, 이해웅, 2013: 15-69) 뒤집어서 말하자면 인터넷 웹과 스마트폰은 정치경제학적 의미를 가지거나, 혹은 정치경제학의 대체제가 되었다. 이것은 즉 문화가 더 이상은 모더니즘 시대까지의 문화처럼 상부의 정치 경제에 부속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화는 시대의 새로운 대세가 되었고 선교도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가속적으로 받고 있다.

2. 원래 문화적이었던 교회와 선교

다문화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정황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기로 하자. 원래 그랬지만 지금 다시 보아도 교회는 원래 문화적이었다. 이런 말이 신학적으로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함께 남기기는 하지만,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실로 그렇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말씀을 그냥 인문적 필치로 말한다면 정치 경제에 시달린 사람들을 종교적 문화로 달래는 셈인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선교 또한 원래 당연히 문화적이다⁶⁾. 즉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교는 또한 다문화선교에로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었다. 네트워크가 발전한 시대에 문화의 상대성을 고려하면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이 다문화선교가 되게 되어 있다. 다문화를 외적으로 표방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선교는 이미 다문화선교적 자리에 들어서 있다. 복음주의적 선교신학과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의 이분법을 넘어 통전적 선교신학으로 가고 있다는 임희모의 판단은 다름 아니라 다문화선교에 대한 좀 다른 관점이다.(임희모, 2008: 142)

그러나 과거에는 다문화라기보다는 문화접합⁷⁾이 있었고, 이제는 그간 한국 선교의 결실과 경제 발전

6) 김성태교수의 소위 선교인류학은 그런 관점 위에 서 있다.

7) 폴 히버트는 이를 ‘비판적 상황화’라는 말로 담았다.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 부딪히는 가운데

의 결과로 활성화된 한국 선교의 지형상 우리 자신과 함께 여러 문화를 두루 고려하게 된 것이며, 이것이 다문화선교 상황이 되었다. 보다 발전적으로는 선교공동체가 여러 선교 현지의 문화를 염두에 둘 뿐 아니라, 가능한 한 여러 파송국의 결합도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 문화적 정황을 더 깊이 고려할수록 이미 선교는 다문화선교로 수렴되어 가고 있다.⁸⁾

3. 세계관 운동으로서의 다문화선교

이미 많은 선교사역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적으로는 이미 이해된 이 다문화선교라는 말은 왜 이렇게 확인되어야 하는 것인가? 새로운 길을 보다 분명히 가기 위해서이다. 선교 및 선교학 발전의 역사를 상세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현재 다문화선교가 앞서 있었던 어떤 선교 논의보다도 시대적으로 더 진전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교가 문화적 발전을 담고 있는 까닭이다. 과거에는 선교라는 것이 선교사가 오지로 나가는 것이 주된 것이었다. 여전히 오지 전도나 문화적 낙후 지역에서의 전도는 계속되겠지만, 당연히 선교된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게 되어 있다. 선교에 있어서 문화의 관심이 꾸준히 일어났던 것은 문화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이유이기도 했지만, 선교지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 때문이기도 했다.⁹⁾ 그리고 바로 그런 면에서 현재의 세계는 말할 수 없이 진전되었고, 교통 통신의 발달로 기본적 소통이 원활해졌다. 그러니 이제는 전혀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함께 혹은 그보다 더 기독교 세계관을 알리고 함께 살아내는 것이 선교가 될 것이다. 다문화선교 연구에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모색이 더 중심적 작업이 되어야 한다. 당연히 활동도 그렇게 일어나야 한다.

요컨대 다문화선교라는 말 자체가,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불러낸다는 의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전해지는 복음과 복음에 관련된 문화의 모든 내용이 한편 세계관적이며 한편 구체적인 모양으로 제시될 것을 요청한다(김성태: 75-110).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제시되어야 하므로, 그 작업이 복잡하고 다양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선교는 신학과 문화를 범세계적으로 아우르는 세계관적 질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교육학적 이념을 따라 말한다면, 실제로 복음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선교적 교류와 함께 문화적 교류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교류는 결국은 세계관적 단계에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선교를 통하여 이해되고 실행되는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선교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선교 파송국으로 와서 스스로의 믿음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살아내는 방법을 얻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문화선교의 고려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 때 그의 삶과 내면에 형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구약의 선지서들이야말로 이런 선교적 상황에 대해 선구적으로 내다보았다. 선지서는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을 더 우선하였지만, 늘 이방이 이스라엘로 나아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Thomas: 14). 물론 이것이 제국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상호 교류적 방식으로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선교사 파송의 단계에서 문화접합의 단계로 나아갔던 선교의 흐름은 지금은 다문화선교에로 나아와 있으며, 선지서들의 선구적이었던 비전은 이제 미래적 상징이 아니라 실체가 되었다. 그리고 선지서가 추구할 수 있었던 수준을 넘어섰다. 지금은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가 아닌가? 이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고 지향해가고 있는 다문화선교의 실상이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은 문화적 의식으로 복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Hiebert, 1997: 113-116.)

8) 예를 들어 다음의 책은 다문화선교의 목회적 차원들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정원범, 2008).

9) 이 시기까지 선교개념의 세세한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을 읽으라: (Thomas, 2000: 16-149.)

하나님의 나라를 제쳐두고 선교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나라를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진 것이다. 그리고 선교라는 시선으로 볼 때에야 비로소 가장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하나님나라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선교는 개교회나 민족교회 보다 큰 영역을 담고 있지 않은가? 한편 세계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엄청난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보다 큰 전체로 보는 시선으로서 선교적 세계관은 또한 존재한다. 바로 이 세계관적 시선에서 선교지 혹은 파송지의 목회자를 이 다문화선교 운동에 영입해 들이고 또한 적절한 방향으로 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구체적인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다. 목회자는 결국은 이 세계관적 선교 운동의 이론적 실천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전체를 보여주는 교육학적 방식으로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커리큘럼화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세계관의 교육적 표현으로서의 커리큘럼

우리는 이 땅의 세계관과는 다른 나라를 그리고 있는 기독교인이며,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 이야기들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세계관을 교육적으로 표현해내는 실제적 방식은 커리큘럼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보다 더 교육학적인 세계 진술이며, 그 어떤 세계관보다 방법적 세계관 진술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커리큘럼은 내용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조직이나 전달 등 세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적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로 실제적 활동에서 교육은 커리큘럼으로 말한다(정일웅, 2011: 300).

커리큘럼이 인간에게 얼마나 피할 수 없는 것인지 먼저 좀 말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갓 태어난 아이를 보라. 이 아이에게 주어진 과제는 아주 명백하다, “세계가 무엇인지 파악하라.”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아도 아이는 약 2년간의 시간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 답은 세상은 안개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이라는 것이다(Ginsberg, Oppen, 2006: 93). 교육학에서는 이를 대상영속성이라 부른다. 그런데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바로 “세계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거기 게재되어 있다. 아이는 아직 감각조차 제대로 분화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세계 전체에 대한 시선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 시기 아이의 변화를 피아제는 6단계로 나누어 해명했는데, 이는 말하자면 영아 시기의 커리큘럼이다(45-99).

1. 커리큘럼으로서의 철학

철학에서도 커리큘럼 상황은 아주 명백하다. 희랍의 철학은 처음부터 세계이해의 커리큘럼을 추구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자연철학자들이 모두 가졌던 물음은 요컨대 “세계란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다. 일례로 탈레스는 이에 대한 답으로 세계는 물이라고 하였다(Ricken, 2000: 34). 인간에 대한 질문에 경도한 소피스트나 소크라테스에게서는 질문이 달라진 것 같아도(87),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내 던진 질문의 가장 깊은 자리에는 형이상학이 있었고, 형이상학의 핵심 질문은 역시 “세계란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다(243-245). 근세 철학자들은 이런 형이상학이 구체성을 왜곡시킨다고 보고 인간의 인식에 치중해 보았지만, 결국 인간의 인식에 나타나는 세계를 말하고자 한 것이었다(한자경, 2006: 40-42). ‘인간의 인식에 나타난 세계는 무엇인가?’라는 말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에까지 미치는 현상학은 결국은 인간의 인식에 드러나는 세계와 본질적 세계가 같은 것이라는 주장과 연관하여 있다(한전숙, 1984: 56-57). “세계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은 철학에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의 여러 캠프들은 이 질문과 연관하여 그 나름의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 커리큘럼으로서의 신학

신학의 세계는 철학이 바라 본 것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보다 주목하면서 열어가는 세계이다. 고대

동방의 신학자 오리겐이 헥사플라에서 여러 사본을 비교하는 주경작업을 한 것을 보면, 오늘날만큼 자료가 충분치는 않아도 성경이 신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그 때에도 확인되었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usebius Pamphilus, 1990: 327-328). 전도를 위해서라도 성경이 말하는 세계가 무엇인지 정리되어야 했고, 이 정리를 맡은 것이 바로 조직신학이다. 최초의 조직신학자로 불리는 이레니우스가 총괄갱신(엠펙 1:10에서 통일로 기록됨)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그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핵심을 그리스도로 인한 세계의 통일로 본 것이다(Walker, 1993: 93-95). 신학이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할지라도 신학의 목표는 이레니우스의 그 목표에서 그다지 멀어진 것이 없다. 그렇게 보면 이레니우스의 총괄갱신은 신학적 세계관의 핵심이며 그 이후 이어진 조직신학의 오랜 노력은 그 커리큘럼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는 것이다. 특징적으로 말했을 때 주경신학은 관찰의 신학이요, 교회사와 함께 조직신학은 해석의 신학이며, 실천신학과 선교신학은 적용의 신학이었던 바, 신학은 애초부터 철학과는 다른 모습으로 귀납적 형태를 띤 커리큘럼으로서 작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신학의 역사가 온전히 그런 것은 아니라 해도, 오늘 신학의 특성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3. 커리큘럼으로서의 교육학

교육학은 바로 이런 인간의 문제와 학문의 문제를 세대를 거듭하며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학문이다. 당연히 다른 학문 전통에서보다 커리큘럼이 더 중심적 문제가 된다(Harris, 1997: 11). 고대라고 해서 인간의 문제가 더 작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며 학문이 발전한 것도 사실이다. 교육학도 그렇다. 근대서양교육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코메니우스의 『범교육학』(Comenius, 2005)에는 실제적 교육학의 많은 요소들이 함께 얽혀 있다. 크게 3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1부는 1-4장으로 이미 앞선 학자들이 언급하곤 했던 교육철학이며, 2부 5-7장은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기록한 것이고, 나머지 3부 8-15장은 연령별 학교에 대한 기록이다¹⁰⁾. 발달이론이 단지 심리학적 인간 이해라고 여겨 경원하는 학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연령에 따라 다른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정신은 후스파의 교회개혁론자였던 목사 코메니우스에게서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연령별학교는 커리큘럼 이론의 전 단계였다. 그는 연령별로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서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에서 이미 교육적 방법에 대한 상당한 접근을 행하고 있다. 커리큘럼의 기본은 “무엇을, 어떻게”라는 것이다. 코메니우스는 그런 관점을 시초적으로 보여준 기독교교육학자이다. 그 이후와 연관된 상황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진술할 것이다.

4. 커리큘럼 이론의 역사적 전개

커리큘럼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진술은 선교라는 주제를 벗어나기는 하지만 다문화선교를 생각하는 방법을 커리큘럼 이론에 건주어 보기로 한 까닭에 커리큘럼 이론의 개괄이 요청된다.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독교교육학이든 일반교육학이든 교육학은 방법론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또한 학동들이 신학적 내용대로 세상을 살아내도록 이끄는 것이 교회교육의 실제적 목표라고 한다면, 교회교육이란 그야말로 방법론일 수밖에 없다. 모든 아이들을 학교의 학생으로 삼아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지상 과제였던 코메니우스 당시에는 교수학이 특히 중요하였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¹¹⁾ 일단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야 했다.¹²⁾ 헤르바르트까지만 해도 교육학에 있어서 방법론적으로는 교수학

10) 여기서 1,2,3부를 나눈 것은 필자의 입장이다.

11) 아무렇게나 내용을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교육 내용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기본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 중요하였다. 그의 『일반교육학』은 수업의 방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이다(Herbart, 2006). 그의 분석적 수업과 종합적 수업의 제시는 베이컨의 귀납법과 칸트 비판철학의 결합으로 불릴 만하다(147-165). 그러니까 근세의 인식 방법론 거의 전체를 교수 방법론으로 변모시킨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흥미와 사고의 다면적 성격을 다루었기 때문에 상당한 교육 내용에 대한 접근이 있지만, 그것은 세계에 대한 관심이기보다는 인간성에 대한 관심이었다(98-103). 그런 만큼 장차 교육내용으로서의 세계와 관련하여 본격적이 될 교육과정론적 관심보다는 인간의 특성을 따른 교수학이 연구 방향의 중심이었다. 그러다가 램프 타이러에 도달하면 교육학은 그 대세가 일변한다. 이미 교육학은 세계를 교육의 내용적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 내용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방법과 내용이 어우러진 가운데 조직적으로 전체를 가르칠 방도를 찾고 있다(Tyler, 1987).¹³⁾ 제대로 교육과정론적 단계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안영혁, 2015: 167-168).

교육학 자체의 실제적 영역에서 교육과정론이 중요해진 이 상황도 그냥 고착되어 있지는 않았다. 램프 타이러는 말하자면 교육학에서 교육과정론의 중요성을 충분히 보여준 셈이다. 그렇다면 그의 교육과정론을 따라 교육학은 또 다시 발전하게 되어 있었다.

타이러가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의 기본원리』를 출간한 것이 1949년이다. 그리고는 1950년대 말에 이른바 스푸트니크 쇼크로 인하여 미국 사회는 듀이에서 타이러로 이어지는 경험주의적, 생활적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과 학문적 논리를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이런 상황에 부응한 교육과정론이 J.S. Bruner의 학문중심적 교육과정이다(홍후조, 2011: 119-120). 그러나 이런 교육과정은 아무리 잘 한다 해도 강력한 국가를 위한 엘리트 교육에 빠지게 되어 있으며, 인격 형성이라는 교육목적은 소홀히 하게 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이제 교육과정의 추구가 교육학자의 것이 아니라 개개 학문 분야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각 교과 담당자가 모두 교육에 눈을 돌리게 한다는 면에서 한편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집단적 목적을 교육에서 실현하려는 움직임과 병행한다는 면에서 교육이 정치주도의 사회 영역이 되어버리는 폐단을 낳았다. 국가가 원하는 바를 따라 교과 내용의 내용을 주무르게 되는 것이다. 관리형이나 촉진형이나 하는 교수법적 논쟁 혹은 병행도 이런 정황에서 나왔다(Fenstermacher, 2011).

윌리엄 파이나(Pinar, 2005) 등의 교육과정론에서는 브룬너를 오히려 교육과정론에서의 퇴보로 치부한다. 파이나는 특히 정치 주도의 교육과정에 대단히 부정적이며, 그런 면에서는 교사가 이미 교육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출발하는 타이러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파이나의 관점에서는 타이러와 브룬너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셈인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학생 개인의 의미를 매우 중시하고 그런 교육과정의 가능성을 찾기 위하여 모색하는 것이 바로 그의 교육과정론이 되었다.

이리하여 현재로서는 매우 관리적으로 보이는 브룬너에서 학생의 경험을 중시하는 타이러 및 학생 개인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파이나 등 다양한 교육과정론이 공존하게 되었으며, 실제 교육을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이들의 교육과정론을 절충, 종합, 협동(홍후조: 123)¹⁴⁾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교육학 전공자들은 이 셋을 종합하는 새로운 길을 얻어서 자기만의

12) 코메니우스는 가르치는 방법을 아는 것을 교사의 자격 중 하나로 보았다(Comenius, 범교육학 7.3).

13) 이 책은 머리말에서 1)교육의 목적과 2)목적 수행을 위한 학습 경험의 선정 3)학습 경험의 조직, 그리고 4)평가라는 단계를 거침으로 교육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 기술하였다.

14) 홍후조, op. cit., 123.

교육과정 방식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각 학문에서 교육과정을 고민하는 사람들 또한 그 학문적 특성에 따라 대화적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옳을 것이다(안영혁, 2015.9: 211-212).

커리큘럼에 대한 이와 같은 소개를 하는 것은 다음의 의도 때문이다. 즉 커리큘럼의 개략을 보임으로써 누구나 커리큘럼이 세계관을 형성시켜가는 방식을 이해하게 하고 이것이 다문화선교에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거기에서도 특히 목회자라는 대상에 시선을 모으면서 다문화선교의 커리큘럼을 이야기하려 한다.

관점은 그렇다. 다문화선교의 커리큘럼은 결국은 다문화선교 목회자 교육 커리큘럼의 확대형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문화선교 자체가 가진 커리큘럼으로서의 성격, 그리고 다문화선교의 교육 커리큘럼, 다문화선교를 위한 목회자 교육 커리큘럼, 이들은 시각에 있어서 차이는 있어도 서로 통하는 것들이다.

IV. 커리큘럼으로 보는 다문화선교학의 내용과 조직

이제 커리큘럼에 다문화선교를 견주는 방식으로 다문화선교가 가진 커리큘럼의 성격을 살펴보려고 한다. 근대적 교육학을 정초한 코메니우스의 교육학만 하더라도 꽤 복잡적이지만, 그래도 교육의 방법과 내용만 있으면 교육을 해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그의 교육학에는 분명하게 있었다. 그래서 교육철학을 따라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으로는 내용을 확정하여 알맞은 방법을 동원하면 교육은 가능한 것이었다. 다문화선교를 위한 커리큘럼도 기본은 바로 이런 사실에 있다.

1. 학문 발전의 궤적으로서의 커리큘럼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교육을 출발시키는 것은 코메니우스의 시대에 이미 존재하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의 귀납법적 견해에 일치하는 것으로서¹⁵⁾ 모든 학동들은 귀납적 방법으로 세계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었다. 이 때 모든 것을 대변하는 학문은 신학과 정치학과 철학(혹은 과학)이었다(Comenius, 2005: 313). 이것이 종교개혁 후의 학교를 아우르는 교회의 커리큘럼이다. 헤르바르트도 귀납법에 의거한 교육방법을 지속시킨 것은 분명하다. 단지 내용에서 신학을 철저히 배제시켰다. 그것이 근대 인문학의 커리큘럼이다. 귀납법의 주된 의미는 새로운 관찰과 해석을 통하여 새로운 진리를 형성시킨다는 것이다. 근대를 거치면서 인간의 지식은 말할 수 없이 늘어났고, 사실 현재는 인간이 지식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대신에 구글검색엔진 같은 것이 가까스로 인간의 지식을 관리해주고 있는 형편이다. 웬만큼 늘어나는 지식에 대하여는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근대 내내 했다고 본다. 그러나 점점 그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을 교육학자들이 깨닫게 되었다. 교육학은 실로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방법과 내용을 사용하여 모든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교육학자들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학자들은 점점 자신들의 임무를 바꾸어 가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런 변화 가운데서 그래도 교육이 지식 전체를 총괄해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이 바로 램프 타일러의 커리큘럼이론이다. 그는 목적, 경험 선정, 조직, 평가라는 4단계 커리큘럼 구조를 완성했다. 아마 역사상 이런 훌륭한 교육학적 체계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모든 교육학 이론은 타일러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야 한다. 이전은 타일러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이후는 타일러를 비판하거나 해명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커리큘럼 분야만의 일일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교육학 전반에 해당되는 말이다. 마치 포스트모더니즘이 우리 시대에 세계를 다 바꾸어놓을 것처럼 기세를 떨친다 해도 과거의 수많은 지식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그 의미조차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타일러 이후의 많은 커리큘럼

15) 귀납을 출발시키는 자료는 말하자면 내용이요, 귀납이라는 방식은 방법에 해당한다.

이론들이 여러 가지 방향을 보여주었지만 그 모든 이론들은 타일러가 있음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타일러가 말하는 대로 커리큘럼을 그렇게 정리하고 완전히 끝낼 수는 없다는 것을 모든 교육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타일러를 기조로 하고, 우리 교육의 형편에 따라 변용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비록 세월이 많이 흘렀다 해도 타일러의 그 방법이 딱 들어맞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그것을 따라야 하고, 단지 시대가 아니라 대상이 되는 분야에 따라 아주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하기도 할 것이다. 사실 브룬너는 타일러보다도 더 과거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며, 파이어나나 아이스너(Eisner, 1983)는 타일러의 지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커리큘럼 이론이 학생 중심의 교육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거의 이 넷 가운데 하나를 택하거나 조합할 수 있고, 그렇게 택하고 난 뒤에도 나만이 작동시켜야 하는 커리큘럼을 가질 수밖에 없다.

2. 다문화선교 커리큘럼의 조직 - 시간, 공간, 필요와 용이성

선교도 그런 자리에 서 있다. 초기에는 단출하게 시작하였고, 복잡해져 가는 세계를 따라 복잡해졌다. 오직 순교적 사명감으로만 감당했던 선교가 문화적 충돌을 혹은 감수하며 혹은 피하여 문화 문제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그런 변화이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는 바로 그 문화가 다양한 채로 함께 드러나 있고, 선교 또한 이런 세계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Bosch, 2000: 34-38). 마치 교육적 커리큘럼이 그렇듯 늘 선교 이전의 복음적 열심을 중심한 선교와, 그리하여 나아온 아주 단출한 선교와, 문화접합을 염두에 둔 선교와, 복합적 문화가 공존하는 선교가 병존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서서 새롭게 이야기하는 선교는 복합적 문화와 공존하는 선교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다문화선교이다.

그래서 이 다문화선교를 정돈해 보기로 한다면, 마치 커리큘럼 이론이 그렇듯이 우선은 선교의 원래적 목적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문화선교의 상황 아래 벌어지는 모든 경험을 열거해야 할 것이다. 그 열거는 앞서 이야기해 온 역사적 전개를 따라 차근차근 보여주면 될 것이다. 그 다음 순서는 이런 다문화선교의 열거된 내용들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다문화선교는 세계관적 이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려는 활동이다. 구체적 활동을 형성시켜가는 작업으로서의 커리큘럼은 필요와 용이성을 따르는 것이 좋다. 코메니우스는 자신의 교육학을 형성시킬 때, 필요와 용이성을 자주 거론하였다(Comenius, 2005: 51). 필요는 그 교육이 존재하여야 함을 말하고, 용이성은 방법을 가지고 수행해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선교 커리큘럼의 조직은 이미 이런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용이하게 채워주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문화선교 자체가 일대일도 아니고 일대다도 아니고 다대다의 공간에 소속된 사람들의 만남이다. 그리고 보면 시간적 의미에서 선교의 역사도 일대일 만남에서 다대다로 발전해 온 역사이다. 여기까지에서 다시 한 가지 원칙을 얻을 수 있다. 역사적 흐름을 따라서 선교의 발전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공간적 이해도 함께 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도 맞다. 즉 공간적 전개를 밝히면 역사적인 것을 품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다문화선교의 내용을 조직하려는 우리의 의도는 좀더 용이한 것이 된다. 다문화선교의 필요성과 용이성을 염두에 두면서 선교의 시공간적 전개를 담아내면 그것이 커리큘럼의 조직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선교를 역사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공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내용적으로 크게 격차가 없다는 것을 깨우치면서, 필요와 용이성을 따라 우리 시대에 선교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모든 활동들을 열거할 필요가 있다. 선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온 세계에 알리는 일이라고 본다면, 선교로서 행하여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의미 있는 것들을 모을 수 있다. 이 열거를 더 알맞게 분류하는 것은 역시 선교학자들에게 넘겨야 한다고 본다. 단지 이 논

문에서는 당장의 다문화선교 목회자 교육 커리큘럼이라는 과제에 맞추어 주체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실험적 분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다문화선교가 다대다의 선교 상황을 담는 것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일대일의 선교적 활동, 일대다의 선교적 활동, 다대다의 선교적 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다¹⁶⁾.

V. 네트워크로서의 다문화선교와 허브로서의 목회자

위와 같이 내용의 조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선교의 상황을 누구에게나 그려내기 위해서이다. 그것이 커리큘럼이 거쳐 가는 단계이다. 이런 커리큘럼을 출발점으로 하여 전개되는 다문화선교는 결과적으로는 여러 개의 네트워크 다발들의 결합으로 표상될 수 있다. 시공간을 따라 일대일, 일대다, 다대다의 조직으로 이해하고, 이 조직을 필요성과 용이성이라는 관점으로 보다 정연하게 정돈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각 주체는 작은 네트워크가 된다.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허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여러 개 네트워크의 만남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기 때문이다(정하웅, 김동섭, 이해웅: 69-106). 허브는 피라미트구조의 상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개념을 여러 가지로 품은 채 소통의 중심으로 존재하는 것이 허브이다. 네트워크는 필연적으로 허브들을 중심적 연결지점으로 삼는 그물 모양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다문화선교는 말하자면 이런 네트워크 활동이다.

1. 다문화선교 허브로서의 목회자

네트워크에서 허브는 중요하다. 다문화선교에서 목회자는 이 허브 역할을 하면 된다. 말하자면 피라미트 구조의 정점도 아니요, 널브러진 다자 가운데 한 인자도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흠어져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리더십인데, 파트너십을 통해서 스스로 리더십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파트너십을 가지게 되면 저절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끈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고, 많은 파트너십을 가졌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허브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많은 파트너십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타인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거나 혹은 타인이 다가가기 용이하다는 것을 뜻한다. 목회자가 의당 허브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허브가 아닌 채 직책에 의해서 남보다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면, 그런 조직은 우리시대에 있어서는 그리 힘 있게 작동할 수 없다. 다문화선교는 특히 더 그렇다. 다대다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입장의 차이들이 좀 더 많고 또 격차가 큰 경우도 많다. 결국은 자신이 이끌리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목회자는 그렇게 많이 이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있다.

다문화선교에서 목회자가 네트워크의 허브가 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네트워크에서 허브가 된다는 것은 이미 가진 위치나 재능이나 인품에 있어서 남들보다 더 흡인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원래 한 사람의 타고난 성품에 좌우되기 쉽다. 목회자는 원래 이런 종류의 리더십을 추구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일치하는 부분도 많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 왔는데, 그 사랑과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배우도록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목회자를 누가 훈련시킬 것인가? 기본적인 틀은 여전히 작동할 것이다. 수련회 기도회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비전트립 등의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목회자 교육은 그 기본이 귀납적이어야 한다. 즉 각자의 입장이 존중되고 충분히 표현되는 모임이라는 뜻이다. 그런 만남 속에서 무엇보다 낮아지고 사랑하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허브로서의 인자가 되어야 한다. 요컨대 목회자의 개방적 귀납적 태도는 네트워크의 시대에 서 있는 다문화선교의 허브로서

16) 이제까지 선교를 이런 방식으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여기에서 그런 시도를 보이려고 하는 것은 역시 네트워크의 한 인자와 허브의 존재에 중심을 두는 방식으로 표상하고자 한 까닭이다.

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 시대의 리더십이기도 하다.

2. 포용성

허브로서의 목회자의 위치를 염두에 두면서 다문화선교의 면면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다문화선교에는 기본적으로는 다민족, 다언어, 다문화가 결부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용성이다. 예를 들어 교회는 성장기 자녀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적용시키기 어렵다. 비록 좋은 결과가 예측 된다 하더라도 교화적 태도는 타인의 존재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옳은 것이 있다 해도 그 옳고 좋은 것을 말할 뿐,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리고 그 이상의 미묘한 부분은 공동체가 나름대로 대면하여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개 소수자들의 문화가 문제인 것보다는 그 문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인간의 죄성이 문제이다. 요컨대 문화적 잣대를 편파적으로 명백히 하는 것은 위험하다(Hiebert: 57-58). 어차피 더 잘되는 사업을 하려는 것이 다문화선교가 아니라면, 때로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다문화선교는 특히 약자를 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약자를 품는다는 것은 포용성의 지성소와 같다.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가운데 늘 절대빈곤이라는 것이 있다. 다문화선교를 통하여 한국교회는 오히려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감정과 관용을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임희모는 다문화상황 초기에는 인권과 복지가 이슈이고, 그 이후에는 정신적 문화적 이슈들이 등장한다고 본다(임희모, 2015: 271-272). 이 진술은 매우 의미 있다. 초기에는 존재 자체의 인정과 생존이 요구되는 것이고, 갈수록 삶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문제가 된다는 말이겠다. 파송지 그리스도인이거나 혹은 다문화적 이주민을 맞이해야 하는 입장인 한국교회는 믿음과 함께 약자를 품는 정신을 가지는 데서 출발하여 다문화적 수용력 일반에로 진전하여 가야한다. 목회자는 이러한 과정을 이해할 뿐 아니라 교회가 그런 과정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견인하는 자리에 있다. 임희모는 우리 사회가 2014년 말에 체류 외국인이 이미 180만에 달하여 다문화 1단계를 넘어 전체 인구대비 5%정도인 다문화 2단계로 육박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도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려고 나름 애쓰고 있다고 말한다(270). 그는 교회가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으로 국가가 노력하는 적응과 동화라는 1차원적 지원 이상의 자리에로 나아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것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임희모의 말대로 역시 삶의 문제이며, 여기에는 말하자면 윤리학적 문제가 있다. 그들과의 운명공동체가 되는 것은 멀겠지만, 거기에도 가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윤리학적인 문제가 된다. 즉 다문화 이웃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를 공유하고, 일상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학 일반의 요소들을 다문화상황에 결부시키면서 거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담아내고 고양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다문화적 삶이 특수성을 가지면서도 보편적인 삶이기도 해야 한다는 말이 될 것이다.

목회자들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더 분명한 이해를 가짐으로 새로운 일에 나아가거나, 혹은 구체적으로 나아온 난관이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여하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문화 허브로서 세워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정해질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또한 공동체를 이룰 때에 순식간에 자리 잡기 쉬운 앞선 자의 권위주의를 예방하는 방도가 될 것이다.

3. 창의성

조금 논의를 발전시켜 보기로 하자. 최근 서울시는 서울역고가공원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꽤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 노숙인 문제이다. 서울시는 일단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한다. 가능하지도 않고 옳은 일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노숙인들을 많은 시설들에

로 들여보낼 뿐 아니라, 노동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원화사업 자체에 필요한 인력용으로 일자리도 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바로 문화적 행정이다.¹⁷⁾ 선교 또한 그런 길을 모색해야 한다. 문화는 정치와는 달리 작은 부분도 살펴보는 시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요청되기도 한다. 문화적 사업에서 이것은 생명과 같다. 다문화선교가 문화를 진정으로 잘 다룰 작정이라면 이런 창의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아직 이 세상에 없었고, 다른 데서는 생각하기도 어려웠던 문화가 다문화선교에서 나올 수 있고, 또한 그것이 다문화선교를 정말 의미 있는 사역으로 서게 할 것이다. 적응과 동화에서 전체적 삶으로 나아간 후 다시 서로를 살리는 삶의 창의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교육학자 코메니우스는 기독교인들이 늘 추구해야 하는 교육의 목표로 지성과 덕성과 신앙이라는 3요소를 제시한 바 있다(Comenius, 2002: 14). 생존 자체가 문제인 시기를 넘어서기 위해 적응과 동화를 하고, 정신적 문화적 요소들에 점점 눈을 돌린 다음, 전체적인 삶의 정착과 고양에로 나아가야 하며, 그것은 불가피하게 다문화특유의 창의력도 요구하게 되는데, 그리하여 다문화적 선교 공동체와 그 지체들은 지성과 덕성과 신앙을 일상적이고 균형 있게 추구하는 자리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2015년 11월 13일 프랑스에 이슬람계 테러리스트의 테러가 있었다¹⁸⁾. 비록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상대적 국면은 있다. 일단은 그 동안 프랑스의 이슬람 조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프랑스는 이슬람 혹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살상해 왔다. 프랑스는 2차대전 이전 끝난 뒤에도 베트남이나 알제리 튀니지의 식민지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큰 전쟁을 치렀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특히 이슬람권 국가 중 하나인 알제리에서는 8년 전쟁 동안에 대략 30만명의 인명을 살상했다. 테러는 여전히 끔찍하지만, 프랑스는 역사 가운데 이미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른 바 있다¹⁹⁾. 이런 것이 다문화적 시각이라고 본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원망을 적게 받을 수 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소국 국민들을 멸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²⁰⁾ 국가적으로 해를 입힌 것은 베트남 경우 정도이고, 그것도 국가간에는 이미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²¹⁾ 그래서 사실 유럽의 제국들보다는 우리나라가 이런 다문화선교를 해갈 수 있는 기반은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다. 프랑스의 창의성이 대단하고 애플의 기술적 자유의 미(美) 같은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 그러나 선교적으로는 우리가 더 좋은 허브가 될 수 있다. 문화는 그렇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서 좀 더 주체적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다문화선교에 들어선 선교사들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선교 훈련을 위하여 훈련 과정 중심의 자서전을 써야 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선교훈련생들이 바로 그런 자서전들을 읽으며, 자신의 다양성을 펼쳐낼 수 있을 것이다. 분명 이런 경험은 흔치 않은 경험이다. 많은 면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낼 자료가 되기도 할 것이고, 선교의 열정을 일으켜 내기도 할 것이며, 우리 세대가 할 수 있었던 선교역량을 상회하는 차세대 사역을 창출해낼 것이다. 그것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교회는 사역의 새로운 방향을 또한 얻게 될 것이다. 여기에도 또한 허브로서의 목회자 존재가 절실하다. 이러한 제안은 즉흥적인 것은 아니다. 교육학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한 개념이다. 윌리엄 파이나는 이것을 자서전 쓰기식 교육과정이라 부른다(Pinar, 61-100). 이것은 다문화선교가 가진 문화적 창의력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보자. 다문화선교는 교회 사역의 창의적 공간으로 작동할 수 있다. 단계적으로 볼 때 교회의 선교 사역이란 첫째가 국내에서의 전도 활동과 사회적 봉사 활동이었고, 둘째가 해외에 선교

17) 오마이뉴스(2016.01.13.) '시민제안이 현실로...서울역고가공원에 서울역노숙자 채용한다,'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5012&CMPT_CD=P0001.

18) 다음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XX91>

19) 이 사태에 대한 상대적 시각에 대하여는 다음의 논문을 보라. (이재원, 2013: 59-60.)

20) 다문화선교 현장에서 늘 확인되는 문제이다.

21) 김영삼 대통령 이후 모든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가지고 호치민 묘소에 참배한 바 있다.

역량을 과전하는 선교였는데, 다문화선교는 국내 사역과 해외 사역을 연결시킬 뿐 아니라 다국적으로 결부시키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게 될 다양한 상황들은 최초에는 부담감으로 작용하겠지만, 잘 감당해 내었을 경우 새로운 경험 발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것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선교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에 있어서의 창의적 공간이 된다는 것이다.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다문화선교협의회 같은 기관은 이런 창의를 출발점 내지는 허브이다. 이것은 다문화선교의 교회사역적 창의력이다.

한편 다문화선교는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도 창의를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우선은 생활 중심으로 자리매김 되는 다문화선교가 자연적으로 몰고 올 한국 사회에의 영향력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또한 미미하나마 해외 선교지에도 그런 영향을 줄 것이며, 다문화선교 개념이 정착되는 그만큼 선교 현지에도 사회적 영향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생활과 사회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면, 이 문제들을 받쳐내기 위해 필연적으로 모종의 경제적 영향력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다문화선교는 사회 및 경제적 영역에서 나름의 영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 제도권 사회 안에서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존립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런 사회 경제적 구체성이 확보될 시기가 되면 더 이상은 다문화선교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비전이 아닐까? 이사야 선지자의 비전처럼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새 일’이 아닐까 한다.

4. 선교의 탈신화화 일상화로서의 다문화선교

다문화선교가 여기에 도달하면 긍정적 의미에서 선교의 탈신화화 효과를 몰고 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생활 이외의 공간으로 떠 있는 선교가 아니라, 선교가 일어날 때 삶도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탈신화적 효과를 몰고 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세속화로도 불릴 수 있는데, 세속화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 탈신화화 과정에 깊이 개입하여 그 탈신화화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현실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하지 않았는데 좋은 것이 올 수는 없다. 교육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연령으로 말해서 세계의 중심은 장년기이다. 왜 그런가 하면 장년기가 일하기 때문이다(Comenius, 2005: 353). 다문화선교의 탈신화화는 곧 다문화선교의 사회 경제적 국면에까지 도달하면서 꾸준히 일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의 효과는 교회 신도 일반의 선교 참여의 가속화이다. 이 가속화는 해외 선교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주로 헌금을 하던 보내는 선교사에서, 이제는 한국 안에서 보내는 선교사 이상의 직접 참여를 감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요즘-2016년을 전후한 시기-스마트폰 선전을 보며 느끼는 한국인으로서의 열등감 같은 것이 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다. 애플의 아이폰 선전은 삼성 폰 선전에 비해 월등해 보인다. 삼성이 막 소니를 따라잡으면서 정말 새로운 느낌으로 치고 나가고 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 때는 애플이 이만큼 IT업계를 주름잡지도 않았다. 그런데 요즘은 뭔가 삼성의 광고는 경직되었다는 인상을 버릴 수가 없다. 반면에 아이폰의 선전은 알미울 정도로 문화적인 냄새를 풍겨낸다. 과연 이것은 미국 사회의 오랜 역사의 힘일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한국 사회의 경직성이 느껴진다. 아무리 창조를 하려고 해도 창조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라고 느낀다. 이런 이야기는 선교사도 원하지 않고 기업인도 원하지 않는 이야기일지 모르나, 정말 그렇다. 우리의 스마트폰이 미국의 그것보다 더 낮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그것이 주된 소망은 아니다. 우리는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포용적이어야 한다. 다문화선교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것도 물론 한국교회가 제대로 다문화선교를 해내고, 목회자는 그 다문화선교를 위한 허브가 되어줄 때 가능한 일이다. 이런 면에서는 국가가 다문화선교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본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유를 아는 사람들이다. 예수께서는 경직되었던 바리새인들의 세계를 바꾸어 놓으려 하셨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실 정도로 자유로우셨다. 그것은 한마디로 탈신화화

었다.

걱정이 되기는 한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 교회가 수구세력처럼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이제 일정 정도의 규모를 가졌고, 이와 관련한 지도자층도 견고해졌음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오래 수구적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런 정황 가운데 지난 세기에는 주로 진보적 입장에서 나오는 비판을 통하여 개혁을 시도하곤 하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세기는 그런 시기도 아니다. 이미 이야기해 온 대로 지금은 포스트모던 시대가 아닌가? 진보나 보수라는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그 무엇이랄도 전체의 움직임에 일신시킬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변화의 주역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일가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문화선교이다. 다문화선교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 개신교 교회에 얼마간 자리 잡았다고 보는 수구적 특성을 개선해 낼 수 있는 운동이자 삶의 체계이다. 최초의 선교 시기 이래 다시 한 번 교회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가능성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최초 선교 때에 한국 교회는 확실히 사회 일반보다 새로운 집단이었다. 20세기말과 21세기 초 개신교교회의 침체는 무엇보다도 사회로부터 공신력을 잃어버린 데서 출발하고 결과도 또한 바로 그것이다. 한국 개신교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수구적인 성격에 대해 반성해 보고 보다 적절한 방향을 찾는 데 있다.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만큼 결과를 되돌려 받을 것이다. 우리는 달라져야 하는데, 그 기본 정서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사역이 바로 다문화선교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우선은 목회자들의 포용성과 창의성과 개방성이다. 목회자가 문화적 허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평신도 허브 창출이라는 과제도 포함된다.

VI. 다문화선교에서 목회자의 실제적 역할

커리큘럼에 건주어 본 다문화선교의 내용과 조직, 그리고 그 속에서의 목회자의 기본적 위상 및 그와 함께 가는 네트워크의 특성이 드러났다. 이제는 다문화선교에서 목회자의 구체적 역할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말하였거니와 목회자가 다문화선교의 인적 조직에서 정점이라고 보는 방식은 구시대적이다. 바로 그 점의 확인을 위해 네트워크와 허브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목회자의 실제적 역할도 네트워크 허브의 위상을 감당하는 것이면 될 것이다. 유예 조건은 있다. 아무리 귀납적 자세를 취하고자 해도, 오히려 네트워크 전체 인자들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시기가 존재한다. 이럴 때에는 얼마간은 운동을 끌고 가는 견인자 혹은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기본적 정신을 따라 짚어 볼 수 있는 목회자의 위치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임희모의 “인권과 복지에서 정신과 문화”라는 커리큘럼 요약은 보다 간단하게는 ‘존재와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혹은 ‘생존과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선교의 존재와 문화를 위해 네트워크 허브로서 목회자에게는 어떤 역할이 요구되는가? 이미 논의된 것에 기초해서 당연한 맥락을 짚어보기로 하자.

1. 전략수립자: 다문화선교의 많은 사역들은 그 모양을 만들어가는 입장에서라면 당연히 전략적 사고를 거칠 수밖에 없다.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의 계획수립과 부문의 조정, 그 이외에 다문화선교가 접촉하게 될 세계교회와 사회일반과의 관계를 고려한 진전의 방향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활동 등이다. 전체 계획의 수립을 위해 커리큘럼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계속하여 진전되고 바뀌어가는 전략 수립을 위하여는 세계교회와 사회의 동향을 결부시킨 큰 개념의 전략회의도 필요로 할 것이다. 다문화선교를 하는 기관들은 이미 운영위원 혹은 운영위원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운영위원은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이와 같은 역할을 선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활동 자체에 다양한 입장의 목회자가 더 많이 결부되게 된다면, 그 때에는 운영위원 구성에 변화가 올 것이다. 전략의 변화도 올 것이다. 그 변화는 새로운 대세가 과거의 중심 인자를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에로의 발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 될지 미리 말할 수는 없으나,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또 선교현장과 연결된 목회자들도 이 운동에 많이 참여한다고 보면, 바로 그들이 이 전략적 활동에 있어서 중심적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일단은 반드시 감당하여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겠다.

2.네트워크 운영자: 전략이라는 부분은 즉 거기에 다문화선교의 이념도 담긴다는 것을 말한다. 이념이란 말하자면 목적의식이다. 이념이 이해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이념을 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운영해 내는 것이다. 우선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문화선교의 이념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실제로 이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확장을 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제와 기금을 필요로 할 것이다. 선도적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한 많은 창의와 실제적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여기서는 각자의 특성을 따라 이론적인 것을 발전시켜가는 사람들과 실제적 조사와 확장에 힘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얼마간은 인식되고 또한 구별도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로의 활동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회자들이 이 일을 해낸다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를 넘어갈 소양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라 할 것이다. 교육과 교제 그리고 기금을 기본으로 가지면서 새로 제기되는 이념적 문제들 및 실제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인적 조직 자체를 유연하게 변화시켜 가는 것도 네트워크 운용이란 관점에서 요청되는 역할이다. 물론 이 부분은 선교기관의 보다 구체적인 출발지점에서 당연한 기본구조를 꾸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3.부문 간 조정자: 운영자라는 위치를 생각할 때, 당연히 뒤를 잇는 목회자의 역할이 바로 부문간 조정자라는 역할이다. 이것은 어쩌면 운영자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 지금은 포스트모던 시대이다. 시대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문화선교란 기본적으로 수많은 사태들과 그와 관련한 관련자들의 관계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사역을 하게 될 것이지만, 부문에서 자기만의 영역으로 지나치게 고착되기 전에 전체의 시선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가야할 것이다. 그런 시선과 역할과 전망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목회자들이 존재한다. 이 조정이 잘 될수록 엄청난 일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다문화선교사역도 개인적으로든 단체적으로든 모두 의미가 있어야 한다. 의미는 원래 이념에 있는 것이지만, 사역이 확장되어 갈수록 그 이념과 구체적 활동이 괴리를 갖게 되면서 의미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끈을 놓쳐버릴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목적에 유의하면서 부문간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 선교기관 운영위원들의 몫이자 계속적으로 확대될 목회자 그룹의 몫이다.

4.전체 계획의 수립자: 이것은 다문화선교사역의 구체성관 관련된 역할이다. 계획은 결국은 실제적이다. 구체적인 것이 결부되지 않은 채 하는 계획은 결국은 목적과 이념 이상으로 나갈 수가 없다. 목적은 중요하지만, 구체적 계획을 통해 실행되지 않으면 전체가 무의미하다. 구체적 활동이 가능하자면, 목적도 중요하겠지만 현재에 실행하는 능력이 보다 실제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다문화선교의 경우 새로운 일을 해 가는 까닭에 늘 능력을 넘어서는 일에 이끌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현재 도달하여 있는 다문화선교의 전 영역에 대한 진단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금까지의 선교활동에 대한 이해와 노력의 집대성을 요청할 수도 있다. 혹은 그 핵심을 짚어내는 것이 요구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전체 계획은 늘 먼저 행한 선교 사역에 대한 평가를 전체로 한다.

목회자를 교육한다는 것은 그 마련부터가 당연한 것은 아니다. 목회자는 교육을 시행하는 사람이지만

교육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함께 의견을 나누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의견을 나누는 것이라 할지라도 의견을 나누어가는 순서는 다시 한 번 교육적 커리큘럼을 통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저런 이념들과 이런 구체화된 역할을 위한 커리큘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간략히 말하여야만 하겠다.

VII. 결어-커리큘럼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 다문화선교적 목회자 교육의 과정

다문화선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목회자들에게 다문화선교를 소개할 때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다문화선교를 주도할 인사들을 향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 커리큘럼은 다문화선교 전반의 교육적 방향이 되기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자체로서 다문화선교의 자기 이해가 되기도 할 것이다. 그 커리큘럼을 조금 기술적(記述的)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중심으로 한 개론
2. 현황을 열거하는 각론과 내용의 조직
3. 구체적 전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투어(tour)
4. 과정에 대한 심화된 이해와 과정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을 얻기 위한 재인식
5. 자서전 쓰기
6. 결의 다지기와 평가²²⁾

이런 과정들에 대하여 또 다시 많은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앞에서 이야기한 커리큘럼의 원칙과 네트워크 및 허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런 실제적 커리큘럼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다. 단 하나 ‘투어’에 대해서는 앞서 별로 말한 바가 없다. 실제적인 것이 정말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지 않는 한은 활동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할 수는 없다. 선교를 실제로 하는 이들은 그래서 비전 트립을 하지 않는가? 그러나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니, 여기에 대해 선교회가 나름의 적절한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이미 행하여졌던 사례들을 실제로 여행을 한 것만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요즘은 미디어가 발전하여 이런 일이 좀 더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차라리 사례발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과정의 이름은 사례발표가 아니라 투어라고 함으로써 실제의 모양을 환기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4의 재인식은 초심자로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소개받은 뒤 자신이 갈 길에 대한 구상을 해보는 단계라 보면 될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실행의 전단계이다. 자서전 쓰기를 하는 것은 다문화선교에서 더욱 주체적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모든 학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구체적 활동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과정 전체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면 다문화선교는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인프라 형성을 논하는 것은 이 논문의 한계를 넘어서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그것은 실무에서의 열정 있는 회의를 거치는 가운데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과정들 또한 기존 전문가의 소개와 참여자들의 토론으로 개선하여 가야 한다.²³⁾ 비록 시간을 허비하는 한이 있더라도 토론 시간을 말미나 짜투리가 아니라 본론의 한 부분으로 두는 견고한

22) 이것은 Tyler의 4단계(목적, 내용, 조직,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Pinar의 학생중심 커리큘럼 이론인 자서전 쓰기를 결부시켰으며, 실행과 관련하여서는 과정의 중간에서부터 이미 경험을 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했다. 이것은 무엇보다 선교는 실행되지 않으면 결실이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일찍부터 실행의 중요성을 각성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다.

23) 즉 귀납적 성경연구 및 선교 토의를 말한다.

커리큘럼을 가져야 한다²⁴). 오늘 다문화선교는 기독교의 모든 것으로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24) 귀납적 토의의 기본이 내용에 대한 통찰을 하면서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태, *선교와 문화*, 서울: 이레서원, 2000.
- 방동섭,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0.
- 안영혁, “교회교육에서 행동주의에 대한 수용적 해석학의 모색,” 『기독교교육정보』 45(2015.6): 165-201.
- 안영혁, “작은교회 교육목회 커리큘럼 디자인,” 『신학지남』 82-3(2015.9): 207-235.
- 이재원, “알제리전쟁의 기억과 기억의 전쟁,” 『Homo Migrans』 7(2013.02): 59-65.
- 임희모, “생명 봉사적 통전 선교,” 『선교와 신학』 22(2008): 141-172.
- 임희모,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과 다중다문화선교 리더십,” 『신학논단』 제81집(2015): 267-299.
- 정원범, *21세기 문화와 문화선교*, 서울: 한들출판사, 2008.
- 정일웅, *교회교육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11.
- 정하웅, 김동섭, 이해웅, *구글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3.
- 한국일, *세계를 품는 교회 통전적 선교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0.
- 한자경, *칸트 철학에의 초대*, 서울: 서광사, 2006.
- 한전숙, *현상학의 이해*, 서울: 민음사, 1984.
- 홍후조, *알기 쉬운 교육과정*, 서울: 학지사, 2011.
- 황영익, *레슬리 뉴비긴과 칼빈의 선교적 대화*, 서울: 드림북, 2015.
- Bosch D.J., *Transforming Mission*, 김병길, 장훈태, 변화하고 있는 선교, 서울: CLC, 2000.
- Comenius, Jan A. *Magna Didaktika*, 정일웅, 대교수학, 서울: 창지사, 2002.
- Comenius, Jan A. *Pampaedia*, 정일웅, 범교육학, 서울: 그리심, 2005(수정2판).
- Eisner, Elliot W. *The Educational Imagination*, 이해명, 교육적 상상력,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1983.
- Fenstermacher, G.D. *Approaches to Teaching* 이지현,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서울: 교육과학사, 2011.
- Ginsberg, Herbert P. & Opper, Sylvia. *Piaget's Theory of Intellectual Development*, 김정민,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서울: 학지사, 2006.
- Harris, Maria. *Fashion Me a People: Curriculum in the Church*, 고용수, 교육목회 커리큘럼,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 Herbart, Johann F. 김영래, 일반교육학, 서울: 학지사, 2006.
- Hiebert, Paul G. 김영동, 안영권,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1997.
- Long Jimmy. *신현기, 새로운 청년사역이 온다*, 서울: ivp, 2009.
- Marx, Karl. 강신준, 자본 I-1, 서울: 도서출판 길, 2008.
- Pampillius, Eusebius. 엄성옥,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서울: 은성출판사, 1990.
- Pierson, Paul E. 임윤택, 기독교선교운동사, 서울: CLC, 2009.
- Pinar, William. 김영천, 교육과정론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음사, 2005.
- Ricken, Friedo. 김성진, 고대 그리스 철학, 서울: 서광사, 2000.
- Thomas, Norman. 박영환, 선교신학 초대교회에서 현대 패러다임까지, 서울: 서로사랑, 2000.
- Tyler, Ralph. 이해명,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의 기본원리, 서울: 교육과학사, 1987.
- Waker Williston. 송인설, 기독교회사(제4판),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국민일보(2016.02.04.) '정선 허그 페스티벌' 6일개막, <http://www.kmib.co.kr>.
오마이뉴스(2016.01.13.) '시민제안이 현실로... 서울역고가공원에 서울역노숙자 채용한다,'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5012&CMPT_CD=P0001.
다음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XX91>.

Discipline of pastors in multi-cultural mission: What and How?
Yonghyock Ahn(Chongshin University, Practical Theology/ Christian Education)

Abstract

Multi-cultural mission is the ministry to deliver the Gospel to the men who have other cultural traditions. But now the range will be expanded. Multi-cultural mission workers will send missionaries with people in different cultures, and the men who are mission target will also have other cultural backgrounds. Besides the cultural understanding of the post-modern era should be parallel. To comprehensively perform all these activities is a multicultural mission. In this mission it can show the core and whole of multi-cultural mission education to train ministers. Therefore this paper will seek the foundation of minister training curriculum. In content it should be revealing the details of multicultural mission as a whole, and in methodology it shall be based on the pedagogical curriculum theory. This curriculum should contain the history and actual contents and prospect of multi-cultural mission. And it should reveal the dynamic directions of it by paying attention to the role of ministers. And methodologically this paper will follow the modern curriculum theory to propose the minister training curriculum for multi-cultural mission. It is as follows. 1. introduction which focuses on the purpose; 2.detail particular contents which enumerate the status and organization of the contents; 3.tour to identify the concrete wholeness of multi-cultural mission 4.deepening of understanding to the curriculum and recognition to find the new start point for the learning 5.writing autobiography 6.resolution and evaluation

key words: multi-cultural mission, world view, curriculum, discipline of pastors, network, hub

다문화 선교에서 목회자 교육: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안영혁박사의 논문)

논평자: 정경호(총신대 강사 선교신학 Ph.D)

안영혁박사의 논문을 읽고 선교와 교육의 신학적인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깊은 감동을 받았음을 서두에 밝히며 안박사님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논평을 하고자 합니다. 본 논평자는 선교신학자로서 교육신학자의 논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선교신학적인 관점에서 논평함을 전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논문의 구성 순서에 따라 이해와 요약을 하면서 논평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과 문화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으로써 어떻게 목회자가 문화를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식에 대해 리차드 니버(Richard Niebuhr)의 다섯 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해서 논평을 진행할 것입니다. 첫째는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둘째는 문화의 그리스도, 셋째는 문화 위의 그리스도, 넷째는 역설적 관계를 가진 그리스도와 문화, 다섯째는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의 총체적인 산물로서 파생한 거대하고 다양한 문화의 소용돌이치는 사조를 목회자가 어떻게 성경으로 해석하며 복음으로 변혁을 이룰 것인가를 고심하는 도전 앞에 있습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화의 변혁을 전제로 다문화선교를 수행해야 하는 목회자 교육훈련을 위한 커리큘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본 논문은 세계관의 교육적 표현으로서의 커리큘럼을 다루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내용뿐만 아니라 내용의 조직 그리고 전달 등 세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적 요소들을 갖고 있으며 이는 실제적 활동에서 교육은 커리큘럼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으로서의 철학과 신학, 교육학 그리고 이론의 역사적 전개를 다루고 이 관점에서 다문화선교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문화선교의 커리큘럼은 목회자 교육 커리큘럼의 확대형이 되어야 함을 적절하게 논술하고 있는 장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논평자는 선교학의 관점에서 세계관이해에 대해 보완적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계관은 문화의 산물이며 문화의 심층구조에는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또한 세계관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총체적이며 근본적인 가치의 뿌리에는 종교가 자리 잡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다문화선교를 위해 목회자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에 문화와 세계관, 타종교에 대한 변혁을 이룰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본 논문은 커리큘럼으로 보는 다문화선교학의 내용과 조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선교 커리큘럼의 조직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필요와 용이성을 그 기준으로 삼은 것은 선교현장과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다문화선교의 다대다의 선교 상황을 설정하여 일대일의 선교적 활동과 일대다의 선교적 활동 그리고 다대다의 선교적 활동으로 분류한 점입니다. 또한 다문화선교를 위한 목회자 교육을 위해서 커리큘럼의 조직은 이미 이런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돕고 채워주는 현장중심과 필요중심의 교육이 되어야함을 강조한 것은 본 논문의 장점이라 사료됩니다. 여기서 본 논평자는 보완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선교를 수행해야 하는 목회자의 사역현장을 보면 동일문화상황에서 선교, 타문화상황에서 선교, 다문화상황에서 선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정세의 변화는 다문화, 다민족, 다인종사회로의 급속한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은 이민자와 이주민에 대해 사회통합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정책에는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류사회의 성원들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을 목표로 교육하는 동화주의 모델과 출신국의 특성을 간직하면서 전체 사회와 조화롭게 공존함을 이상으로 하여 교육하는 다문화주

의 모델이 있습니다. 어느 모델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다문화선교를 위한 목회자 교육의 커리큘럼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본 논문은 네트워크로서의 다문화선교와 허브로서의 목회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문화선교 상황에서 목회자의 역할은 네트워크의 허브이며 이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목회자가 교육되어야 할 다문화선교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선교를 실행함에 있어서 문화의 허브로서 목회자는 포용성과 창의성 그리고 개방성이 우선적으로 교육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은 본 논문의 장점입니다. 여기서 본 논평자는 보완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한 공간과 시간에 공존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선교에서는 목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목회자는 네트워크와 허브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선교신학적인 의미가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다문화사회와 분리되지 않고 깊이 참여하면서도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에 빠지지 않고 복음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화변혁이 될 수 있는 목회자가 양성되도록 교육 커리큘럼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본 논문은 다문화선교에서 목회자의 실제적 역할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문화선교의 존재와 문화를 위해 네트워크 허브로서 목회자는 전략수립자, 네트워크 운영자, 부문 간 조정자, 전체 계획의 수립자가 되어야 할 것을 제시한 점에 대해 본 논문의 가치를 매우 높게 논평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커리큘럼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 다문화 선교적 목회자 교육의 과정을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목적을 중심으로 한 개론, 2. 현황을 열거하는 각론과 내용의 조직, 3. 구체적 전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투어(tour), 4. 과정에 대한 심화된 이해와 과정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을 얻기 위한 재인식, 5. 자서전 쓰기, 6. 결의 다지기와 평가입니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실제적 교육의 총체인 커리큘럼이론에 따라 다문화선교를 위한 목회자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한 훌륭한 논문입니다. 감사합니다.